

“코로나로 잊어버린 야외낭만 찾았어요”

문예회관 ‘아트워크’ 기보니

지난 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아트워크 세 번째 공연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씬어롱 콘서트’가 열린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공연 시작 30여 분을 앞둔 오후 7시 30분 객석은 빈자리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날 마련된 좌석은 600석. 이 중 500석은 사전예매로 선점됐고 남은 좌석도 공연 시간이 가까워지자 현장을 찾은 시민들로 꽉 들어찼다.

이날 공연은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코로나 19를 이겨낸 광주시민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아트워크’ 무대였다.

뜨거웠던 태양이 지고 여름밤이 찾아오자 공연이 시작됐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콘서트 ‘가족이라는 이름’의 막이 올랐다. 단원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쉼’, ‘부모님의 기도’ 등의 곡을 합창했다.

1막 공연테마가 ‘가족’인 만큼 무대에 오른 곡들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2막 공연은 ‘씬어롱 콘서트’. ‘다 함께 부르는 공연’이 테마였다.

특별 게스트로 초청된 ‘씬어롱 밴드’가 뮤지컬 맘마미아 OST 대표곡인 아바의 ‘허니 허니’와, ‘아이 해브 어 드림’, ‘맘마미아’, ‘댄싱 퀸’을 연주했다.

초반에는 노래를 부르기 망설여 했던 관객들도 하나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연주가 무르익을수록 관객과의 합창까지 하나 둘 어우러지면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색다른 무대가 연출됐다.

공연장에 들어서진 못했지만 인근에서 산



지난 9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광주문화예술회관 ‘아트워크’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씬어롱 콘서트를 찾은 시민들이 여름밤 야외 공연을 즐기고 있다. /이나라 기자

코로나 극복 시민 위로공연

씬어롱 콘서트 600석 매진

관객 합창...색다른 무대 선포

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던 시민들도 가던 길을 멈춘 채 공연에 몰입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마지막 공연은 1960년대를 대표하는 비틀즈의 곡으로 채워졌다. 합창단원들의 맑고 청량한 목소리가 기존에 들었던 비틀즈 곡과는 색다르게 들렸다.

공연이 열린 야외음악당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들쭉이던 시기 광주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됐던 장소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야외음악당은 3년여 만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선별검사 텐트를 설치한 자리에는 무대를 즐기 위한 객석이 마련됐고, 야외무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하는 장소로 다시 활짝 열렸다. 공연이 끝나자 시민들 또한 아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육수영씨(49·여)는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공연들이 없어 아쉬웠는데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며 “문화도시 광주에 걸맞게 앞으로는 더 많은

공연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우양(13)은 “그동안 실내 공연만 봐서 답답했다”며 “야외에서 공연을 보니 상쾌하고 꼭 소풍 나온 것처럼 신나고 좋다. 또 이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트워크’ 무대는 한 차례 더 남아있다. 오는 14일과 15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광주시립발레단이 ‘자연을 무대 삼아 광주시민에게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빛의 정원 II’의 무대를 선보인다.

광주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시민들이 공연을 즐기면서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소망한다”면서 “남은 공연도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전남관광 디카시 ‘웃음꽃 전남’



용두암

오승록

용두암!
죽어 바위로 변한
용머리 만년지기
흔을 안고
희망너울 춤을 춘다

ACC 문화예술 전문인 교육생 모집

‘콘텐츠 발굴·실행’ 과정...21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ACC 전문인 ‘콘텐츠 발굴·실행 PART 2’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ACC 문화교육실과 광주시 동구 미로센터에서 진행된다.

ACC 전문인은 작업 현장, 전문가 등 ACC가 보유한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콘텐츠 발굴·실행’ 과정은 콘텐츠별 현장 관련 기초 교육 ‘PART 1’과 ‘이론 및 실습 실무교육 후 인턴십’으로 이어지는 심화과정 ‘PART 2’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교육 참여자가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CC는 이번 PART 2 과정에선 ‘융복합 콘텐츠’, ‘외벽 영상(미디어 파사드)’, ‘실감형 미디어와 실감콘텐츠’, ‘1인 방송국 실행’ 등 총 4개 강좌를 운영한다.

분야별 기획자와 작가, 기술자 등이 강사로 나서 현장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 수강생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수 수료자에게는 오는 9·11월 ACC와 미로센터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는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수강생 중 광주 지역 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선발을 통해 속소도 지원한다.

교육 참가 신청은 11일부터 21일까지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하면 된다. /최진화 기자

무더위 날릴 ‘슈퍼밴드’ 무대 열린다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

오늘 신창동 역사문화공원

제123회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이 11일 오후 7시 신창동 역사문화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은 무더위 속 시원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슈퍼 밴드가 출연하는 ‘2022 SUPER BAND in 광주’다.

‘천원의 낭만’은 광주시 2022년 공연예술진흥지원사업에 선정된 (사)통섭이 주최·주관하며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협력한다. ‘천원의 낭만’은 1,000원이라는 금액으로 매월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지역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시작했다.

첫 무대는 얼터너티브 밴드 윈디갯이 연다. 광주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K팝 밴드인 윈디갯은 프로듀서 오영석과 싱어송라이터 김혜림으로 구성된 밴드다.

2000년 초반 첫 활동을 시작해 관객과의 소통을 통한 라이브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팀이다. 두 번째 무대를 꾸미는 우물안개구리는 거리를 장악한 유쾌한 길거리 음악사, 재치 있는 라이브 무대로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3인조 어쿠스틱 밴드다. 청춘의 사랑과 고민, 방황을 유쾌하면서도 파스한 감성으로 노래한다.

세 번째 무대는 재즈밴드 비스코시티가 꾸민다. 오랫동안 활동해온 재즈뮤지션들과 알앤비, 힙합 뮤지션들이 만나서 음반레이블을 만들고, 블랙 뮤직(Black Music)에 기반을 둔 음악으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다. 마지막으로 20년 넘게 꾸준히 봉사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문화를 활성화 하는 유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프런티어’, ‘아리랑랩소디’, ‘아름다운 나라’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이날 공연은 무료이며 감동후불제로 진행된다.

공연에 앞서 신창동 역사문화공원에서는 다양한 환경행사도 열린다. 자원순환을 위한 물물교환 장터가 펼쳐지고 플로깅을 실천한 주민에게는 쓰레기 봉투와 집계를 지급하는 ‘워크온 챌린지’도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2-226-2032)나 천원의 낭만 블로그(blog.naver.com/tongsub_)로 하면 된다. /최진화 기자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기업



생산 및 품질인증시스템의 구축은 물론 **고품질, 고효율, 유지보수**에 편리한 제품 생산을 위해 임직원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완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가치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생산품	태양광EPC
-----	--------

수배전반(고압반, 저압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등)

태양광시공 및 분양, ESS, 전기공사, 유지보수

현대일렉트릭 특약점	변전소전기공사
------------	---------

비상발전기, 변압기, 모터, 차단기, 태양광PCS

154/345kV S/S 공급 시공, 시스템설계, PM



대표이사 **노 정 규**

C.P 010-3573-1323
Homepage <http://rotech.kr>
E-mail rotech@rotech.kr

광주본사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연신로 340 (연제동) 현대로오텍(주)
TEL : (062) 972-4491 FAX : (062) 972-8863
목포공장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불3길 14 (난전리) 현대이엔티(주)